

5/24(화) 욥기 6-10장 상처 주는 위로자

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<낮선 하나님>과 마주합니다.
세 친구들은 고통 속에 고뇌하는 욥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(4-27장).

❶-1 엘리바스(첫 번째 말, 4-5장)

엘리바스는 깊은 영적 체험을 지닌 사람입니다(4:12).
그는 욥의 고난을 죄 때문으로 여겼습니다(4:7-9).
고난은 하나님이 훈련하고 징계하시는 도구이니(5:17-18)
저항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합니다.
회개하면 장막과 자손이 회복되리라 위로합니다(5:25-26).

❶-2 빌닷(첫 번째 말, 8장)

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배움을 중시합니다(8:8-10).
그 역시 욥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죄 때문으로 봅니다.
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(8:4-6,13).
웃음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권면합니다(8:20-21).

욥은 결백을 주장하며 변호합니다(6:24, 9:21,32-35, 10:2-7).
친구들의 위로는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(6:14-15).
그들은 욥과 죽은 자녀들을 정죄하며 ‘자손’과 ‘회복’을 선불리 언급합니다.
욥은 무기력함에 절망하며 죽음을 갈망하면서도(7:2,6,7,9, 10:18-22)
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간청합니다(7:7-21, 9:25-32, 10장).

친구들의 신앙 명제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,
욥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(6:22-30).
친구들은 욥이 아니라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

침묵하며 공감했을 때, 그들은 가장 좋은 위로자였습니다(2:13).

나는 선불리 판단하거나, 선불리 위로하지 않습니까?

- ❶ 나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?
- ❷ 주님 앞에서 충분히 슬퍼하며 씨름할 시간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욥기 6-10장